



##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 인천광역시 지부를 찾아서



6.25 참전 유공자회 회원 단체사진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로부터 67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분단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 앞장섰던 6.25 참전용사들은 세월이 흘러 이제는 연로하고 잊혀져 가는 존재로 남아있습니다.

6월 호국의 달을 맞아 그 분들의 용기와 희생을 되새겨 보기 위해 남구 주안동에 위치한 6.25 참전 유공자회 인천광역시 지부 고용희 지부장을 만났습니다.

고용희 지부장은 6.25 전쟁 당시 개성 전투 등 서부전선 최전방에서 참보대원으로 활동하였다. 사전에 적의 동태를 파악하고 적진의 정보를 얻어 아군을 승리로 이끌었던 참보대원들은 전쟁 당시 많은 희생을 겪었습니다.

참혹한 전쟁터의 최전방을 지키던 여러 명의 군인들, 그 분들의 계셨기에 지금의 강화도나 인천지역의 서부전선을 지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개성 해안선을 따라 나 있던 숲길이며 바위가 있던 침투노선이 선하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치열했던 전쟁의 기억은 노병의 기억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는 듯 합니다.

Q.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현재 인천광역시에만 6천여 명의 참전 유공자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한 유공자들을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생계가 곤란한 유공자들에게 연탄이나 쌀 등 생필품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둘째, 6.25 참전용사들은 평균연령 87세의 고령이라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내 병원과 결연을 맺어 의료 분야 쪽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이 어려운 유공자 분들의 낙후된 집을 수리하기도 하고, 작년과 올해 새 집을 두 채 지어드리기도 했습니다.

Q. 유공자 단체가 지향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유공자분들은 고령의 나이에 경제력이 없을 뿐 더러 정부에서 지급하는 참전수당은 턱 없이 부족합니다. 이들에게 생계지원과 각종 의료혜택을 지원하고 물질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참전 용사에 대한 존경심, 예우



6.25 참전 유공자회 인천광역시 지부 고용희 지부장

문제도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지금 세대들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인천광역시 관할 내 초·중·고등학교들과 대학 학군단들에게 6.25 바로 알리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우리나라의 역사교육과 6.25 바로 알리기 교육을 통해서 전쟁의 참상과 심각성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Q. 지역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

우리 호국영웅들에게 존경심을 가져 줬으면 합니다. 그분들에게 경제적 도움이나 의료 혜택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존경의 마음과 따뜻한 시선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Q. 전쟁을 겪지 않은 미래 세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중국, 러시아, 일본 같은 강대국들의 틈에서 살아왔습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그것도 반으로 나뉜 조국에서 맨주먹으로 지금의 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전쟁은 참으로 비참하고 참혹합니다. 후세들은 이 나라를 더욱 발전시켜서 전쟁 없는 이 땅에서 잘 살길 바랄 뿐입니다.

김은미기자

## 주민이 중심이 되는 살기 좋은 남구를 만들기 위해

남구 사회복지관 거점 복지공동체 시범사업 - 주민 리더 역량강화 교육



주민리더 역량 강화 교육



주안 5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박창식 위원장

인천 남구에서는 2017년 3월부터 인천시 지원 사업으로 살기 좋은 마을 구축을 위해 남구 종합사회복지관(미추홀·송의·인천) 거점 복지공동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3개 종합사회복지관을 거점으로 남구 21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주민리더 역량 강화교육, 간담회, 선진지 견학, 주민 공동체활동 등의 사업이 추진됩니다.

그 중 주민리더 역량강화교육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을 주민리더로 양성하여 지역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지난 6월 12일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역량강화교육'을 통해 기대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변화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 번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에서 6월 22일 진행된 3회기 교육에 참석한 주안5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박창식 위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보았습니다.

Q.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요신문 정국부 부장이자, 주안 5동 주민자치위원회 총무·기획위원장 겸 주안 5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창식 위원장입니다.

Q. 주민 리더 역량강화 교육에 참석하게 된 계기가 어떤가요?

주민자치위원이자 주안 5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이전부터 지역사회 복지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저의 역량을 높이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 교육을 기회로 삼아 실력 있는 여러 강사님들의 강의를 듣고 배워, 강의 내용을 지역사회에 적용해보고 싶은 마음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Q. 오늘로써 3회차 교육이 진행되었는데, 그동안의 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 강사님과 1, 2회기 교육에서 만난 남구 전체 21개동 복지협의체 위원들 간의 소통을 통해 그동안 제가 모르고 지나쳤던 부분에 있어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덕분에 앞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이끌어 많은 도움이 되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의원들이 있다면 꼭 필요하기에 참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Q. 남구만의 복지를 이루기 위해 주민리더들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남구는 역사가 오래된 구도심으로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주민리더들이 더욱 노력해야 할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저희의 노력을 통해 굶주림과 고독이 없으며 자살이 없는 남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마을공동체는 곧 복지공동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복지사각지대의 발굴과 사람 중심,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민관 협력 동행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Q. 앞으로 앞으로의 계획과 지역주민들에게 한마디.

남구주민의 일원으로 내가 아닌 우리의 길, 협의체 의원이 아닌 진정한 봉사자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또한 미약한 도움이라도 어려운 분들의 동반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직 미흡하지만 지역주민들이 언제든 불려만 주신다면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힘든 점을 터놓고 알려주시면 항상 경청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따뜻한 나눔가게를 소개 합니다.

- 정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위한 실천에 항상 감사합니다.
- 따뜻한 나눔을 함께 실천하실 분은 032)876-8181로 연락 바랍니다.

### 돌판향기



신선한 고기와 특별한 돌판을 이용하여 보다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맛있는 음식점!

인천 남구 주안 5동에 위치한 돌판향기는 저렴한 가격과 감동적인 맛으로 손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음식의 맛을 최대한으로 느낄 수 있도록 손님이 만족하고 나가기 전까지 옆에서 보조하여 음식을 대접하고 있으니 꼭 한번 찾아가서 먹어보지 않을 수 없겠네요. 그중에서도 가장 인기있는 메뉴는 바로 두루치기! 푸짐하고 상상의 야채와 함께 볶아주는 두루치기는 간장게장은 명함도 못 내릴 밥도둑이라고 하니 꼭 먹어보세요!

돌판향기의 특별한 서비스 하나!

고기를 드신 모든 손님에게 잔치국수가 제공된다는 사실!! 식사 후 입가심으로 땀 뻘뻘 사창님이 맛있는 고기에 돌판의 풍미까지 곁들여주는 돌판향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예약문의: 032-873-8625 ·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2(주안동)

### 정자갈비



아이들과 함께 편안한 외식을 즐길 수 있는 편안한 양념돼지 갈비 요리점!

인천 남구 주안 5동에 위치한 정자갈비는 가족들과 함께 편안한 주말 외식을 즐기실 수 있는 식당입니다.

아이들이 있는 부모님들, 식사하러, 아이들 행기느라 많이 힘드셨죠? 정자갈비에서의 식사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준비되어진 안전한 놀이방과 함께라면 말이죠.

양념갈비는 일반찬으로 나오는 명이나물과 함께 먹어보시면 달달하면서 느끼하지 않는 맛을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이번 주말, 타기 쉬운 양념갈비를 알아서 잘리주는 친절함 직원분들의 서비스와 함께, 가족들과 잊지 못할 외식을 즐겨보시는 것이 어떠십니까?

☎예약문의: 032-874-9588 ·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12(주안동)

### 흥남면옥



아이들친화적 왕갈비를 가족들과 함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음식점!

주안5동에 위치한 흥남면옥은 이동갈비와, 왕갈비가 맛있다고 소문난 맛집입니다. 고기와 함께 즐기실 수 있는 다양한 밑반찬들 또한 준비되어 있는데요, 특히 굵은 도라지 무침은 고기랑 함께 먹으면 매콤한 맛이 어우러지며 맛을 고기의 달달한 맛을 더욱 실려줍니다. 물론 도라지무침 이외에도 여러 싱싱한 채소들과 함께 맛있는 고기쌈을 즐기시는 것 어떨까요?

특히 흥남면옥의 왕갈비는 연하고 부드러운가 일품이라는데요, 달달하고 부드러운 갈비를 가족들과 즐거운 외식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나칠 수 없는 꿀팁! 흥남면옥에서는 갈비포장판매를 30% 할인하는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다는 사실!! 혹시 함께 가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선물로 사가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예약문의: 032)441-1444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로 178





## 복지관 소식



### 남동망·남구암 대표카페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업무 협약 체결

- ▶ 일시 : 2017년 6월 1일(목)
- ▶ 장소 :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 ▶ 내용 : 지역사회 복지 향상을 위한 상호협력 관계를 위한 남동망·남구암 대표카페 업무협약



### 3회차 주민의식교육 '사례로 보는 성범죄'

- ▶ 일시 : 2017년 6월 7일(수)
- ▶ 장소 :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2층 대회의실
- ▶ 내용 : '사례로 살펴보는 성범죄' 법률 지식 강연



### 제1차 마을간담회 '모여봄' 행사 진행

- ▶ 일시 : 2017년 6월 8일(목)
- ▶ 장소 :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1층 명상센터
- ▶ 내용 : 미추홀복지관 주민들이 '주부9단' 우수사례 선정 및 사례 공유



###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소방합동훈련

- ▶ 일시 : 2017년 6월 21일(수)
- ▶ 장소 :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 ▶ 내용 : 인천남부소방서 화재 대비 합동 모의훈련 진행



### 복지공동체 주민리더 역량강화교육 3회기

- ▶ 일시 : 2017년 6월 22일(목)
- ▶ 장소 :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2층 대회의실
- ▶ 내용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에 대한 주민리더 역량강화교육 실시



## 사단법인 미추홀공덕회 소식

### 미추홀 선센터 건립추진을 위한

1250 나한님 봉안 공덕주를 모십니다.  
지친 현대인들의 새로운 힐링 센터 및 수행 공간이 될 (가칭) 미추홀 선센터의 공덕주가 되어, 한량없는 대복전(福田)을 누리십시오.  
나한상 봉안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여 미추홀선센터에서 1250 나한님 절단 대법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나한님을 봉안하시어 사업, 취업, 건강, 업장소멸 1인1나한님을 가족염원을 담아 모시게 됩니다.

#### 미추홀선센터 운영계획

시민선방 인생의 의문을 풀어줄 체계적인 참선교육의 시작

출가 및 재가와 시민들의 마음의 안정처로 종교를 초월하여 실용적이고 대중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기획·운영(단기출가, 템플스테이 등) 숙소 설치

#### 전통사찰음식연구소 및 교육관

한국 사찰음식의 맛과 지혜를 도심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우수한 사찰 음식을 널리 알리고 전문조리사 양성 및 우리 농촌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농가소득증대 기여함.

#### 도심 속 전통 카페 상설갤러리, 불교박물관 등 불교문화 전시관 운영

누구나 쉬어 갈 수 있는 전통 카페로 스님과 함께 하는 다도와 명상 프로그램 운영, 상설 전시를 통한 불교문화재 및 관광

#### 복지시설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불교복지사업

어려운 이웃과 생사고락을 함께 나누며, 자비나눔 실천을 통해 자기 삶의 지혜를 얻는 자원봉사 활동 및 기부문화의 확산 운동 전개

#### 참살이 배움터 문화·예술 공연장 및 평생교육센터

불교복지 강좌, 청소년 자비명상을 통한 인성교육, 현대인의 건강한 마음 행감을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 ◎ 미추홀선센터 불사건립기금미련 1250 나한님 봉안  
- 한분 조성 125만원(월 분납도 가능)
- ◎ 미추홀선센터불사추진위원회, 미추홀공덕회 공동주관  
- 불사추진위원장 원상 황종택, 증명 보월 석종연
- ◎ 동참문의 : 사단법인미추홀공덕회 사무국(전화 032-438-8004)
- ◎ 입금계좌 : 신한은행(100-031-575426/예금주 사단법인미추홀공덕회)

## 운영사찰 수미정사 소식

### 14주년 개산법회 및 8·9대 신도회장 이취임식



불기 2561(2017)년 6월 11일 수미정사에서는 14주년 개산법회 및 제 8·9대 신도회장 이·취임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수미정사 회주이신 종연스님과 부주지 일원스님, 영산정사 주지 설주스님과 불교문화원장 현빈스님, 박우섭 남구청장, 김금용 시의원등을 비롯한 많은 내빈들과 수미정사 신도가 함께 축하하고 격려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이임하는 8대 원상 총신도회장과 7대도화주 자동월보살님, 5대 해운 총동문회장님에 회주스님께서 공로패전달을 해주시고, 취임하는 9대 신도회 임원진에 임명장 수여를 해주셨습니다. 이후 직인 인수인계, 축비 인수인계, 축사, 인사말, 축가, 발원문, 축하 떡 케이크 절단식 등의 식이 이어지며 여법하게 행사를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회주스님께는 “불교는 끝이 없고,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는 계기가 된다.” 라고 말씀 하시며 임기를 마친 8대 원상 황종택 회장님과 임원단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새로 취임하는 9대 돈오 김영삼 회장과 임원단에 축하를 드리며 총신도회를 잘 이끌어주시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설법을 해주셨습니다.

## 알짜배기 소식통

### 사회취약계층 요금감면 복지로서 신청하세요

**요금감면 제도란?**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복지로서 신청 가능**  
지금까지는 감면대상자가 주민센터나 해당 기관을 방문해야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5월 19일부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통합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 STEP1 온라인 신청 시작
- STEP2 공인인증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
- STEP3 서비스 선택 및 주의사항 확인
- STEP4 신청정보 입력 및 동의
- STEP5 통합감면 서비스 신청정보 입력
- STEP6 신청완료 및 제출

### 6월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주요 체크 포인트!!!

**주정차 차량 사고 처벌**  
운전자가 없는 주차된 차량에 사고를 낸 후 도주한 운전자 처벌  
적발시 범칙금 20만원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의무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어린이의 안전한 하차를 확인한 후 운행  
위반시 범칙금 20만원

**유아 카시트 장착 규정**  
만 6세 미만의 유아를 태우고 주행시 유아용 카시트 필수 장착  
적발시 범칙금 6만원

**터널 내 차로 변경 금지**  
터널 입구와 출구에 설치된 CCTV를 바탕으로 단속  
위반시 범칙금 3만원

## 보리수 도예 공방을 소개 합니다.

- ▶ 보리수 도예공방
- 프로그램 안내

프로그램	인원	대상	교육비	일시
도예의 꿈 (아동도예)	최대 20명	6세 ~ 13세	40,000원 (재료비, 소성비 포함)	월요일 17시
도예의 숲 (성인도예)	최대 20명	20세 이상	40,000원 (재료비, 소성비 포함)	수요일 15시

- ▶ 장 소 :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 ▶ 신청기간 : 상시모집
- ▶ 수강료 및 이용문의 : ☎032876-8181



※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입니다.  
대신 성실한 수업참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취약계층의 경우 내부회비를 통해 감면혜택이 주어 집니다. (관련서류제출)



## 우리 동네 탐방

### 국악과 양악을 넘나들며 아름다운 선율로 인천을 알리는 - 음악창작소 The 울(律)



“인천을 사랑하여, 음악으로 인천을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인천 문학동에 위치한 ‘음악창작소 The 울(律)’은 국악과 양악을 넘나들며, 다양한 음악적 장르로써 인천을 알리는 공연을 진행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또한 ‘더 울’은 지난해 인천아시아경기대회 폐막식 식전공연, 국제포럼 행사 등 다양한 공연을 진행하며, 전 세계에 아름다운 선율의 국악을 널리 알렸습니다.

우리의 소리와 인천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더 울’의 김혜령 아트 감독을 만나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Q. ‘음악창작소 The 울(律)’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저희 ‘음악창작소 The 울(律)’은 음악에 뜻을 두고, 인천을 홍보하고 인천 고유의 색깔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10년 창립되어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현재 저희 팀에는 5명의 인원이 있으며, 공연을 같이하는 객원 멤버 6명까지 포함하여 총 11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지역주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수준 높은 공연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 송학공원 사무실에 이어 새로 신기시장 내에 사무실을 차려 총 두 군데에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중 신기시장에 위치하고 있는 사무실은 저희로 인해 시장 상인들에게 힘을 불어넣고, 음악이 흘러넘치는 시장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일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현재 신기시장 내 사무실에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음악 강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악강습은 지역주민들과 시장상

인들이 악기를 배움으로써 음악에 친근하게 다가감과 동시에, 함께하는 그룹을 통해 지역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효과도 같이 가질 수 있습니다. 더구나 악기입대서비스도 함께 진행하고 있어 배우는데 지역주민들이 악기를 배우는 데 있어 부담이 없습니다.

#### Q. ‘음악창작소 더 울(律)’만의 특징이 있다면?

저희의 공연은 ‘더 울’만의 공연 주제와 콘셉트로 구성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연의 주제는 저희가 살고 있는 ‘인천’입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다양한 공연 중 ‘홍적’이라는 공연은 인천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중구의 에관극장과 배다리가 주제였던 공연이었습니다. 또한 현재는 인천의 ‘섬’에 대해 알리고자 주제를 잡고 곡과 공연 내용을 제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 공연의 컨셉은 미디어 융합 퍼포먼스입니다. ‘미디어 융합 퍼포먼스’란 음악과 함께 영상이 함께 진행되는 공연을 뜻합니다. 노래의 배경과 관련된 영상으로 인해 관객들이 저희의 음악을 이해하기 쉽고,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퍼포먼스입니다.

#### Q. 기억에 남는 활동 또는 공연이 있다면?

지금까지 많은 공연을 진행해왔지만 그 중 아시안게임 폐막식에서 했던 공연이 가장 기억에 납니다. 공연장에 모인 많은 젊은 세대들에게 국악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고, 국악의 매력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작년에 어린이를 위한 순회공연

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 공연을 보고 나서 어린이들뿐만이 아닌 여러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의 음악이 너무 좋으며, 악기를 배워볼 수 없는지에 대한 문의 또한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공연들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납니다.

#### Q.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현재 남구에서는 주민들이 주축이 되는 합창단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안타까워 신기시장 상인들과 지역 주민들을 토대로 그분들의 삶을 나눌 수 있는 ‘남구시민합창단’을 만들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남구시민합창단’이 만들어지면 문화와 삶이 공유되고 지역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Q. 앞으로 ‘음악창작소 더 울(律)’의 공연을 듣고 싶어 하는 지역주민들에게 한마디.

저희는 인천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 가치를 높이기 원하는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함께하는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만 노력해서는 힘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주민들도 마음을 열고 함께 인천의 가치를 귀히 여겨야 그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노력하는 팀이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시고 많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음악을 지속함으로써 여러분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음악창작소 더 울(律)’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작년에 어린이를 위한 순회공연

## 아이의 꿈을 키워요



### 향긋한 커피와 함께 주민들의 지친 마음도 내린다 - 바리스타



‘CAFE 봉봉’ 신혜영 바리스타

6월 I can do it에서는 미추홀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다니는 김진희 학생이 꿈꾸는 ‘바리스타’라는 직업을 소개합니다.

‘대한민국은 커피공화국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커피 수입량과 시장의 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리스타는 이처럼 필수 기초 식품이 된 커피를 다루는 전문가입니다. 한 잔의 맛있는 커피가 만들어지기까지 음료를 추출하고 손님에게 전달하는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게 바리스타의 역할입니다. 이러한 바리스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주안 5동에 위치한 ‘CAFE 봉봉’을 찾아가 신혜영 바리스타를 만나 인터뷰 하고 왔습니다.

#### Q. 자기소개와 현재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저는 오랫동안 주안5동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는 ‘CAFE 봉봉’을 운영하고 있는 바리스타 신혜영입니다. 저희 카페를 방문하여 주시는 지역주민들에게 커피와 차 등 여러 음료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 I can do it.

### 향긋한 커피와 함께 주민들의 지친 마음도 내린다 - 바리스타

맛으로 인정을 받고 멀리서도 꾸준히 찾아와 주시는 단골이 생겼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 Q. 바리스타를 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바리스타가 되기 전에도 커피를 많이 좋아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쁘게 꾸민 카페를 차리고 싶은 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고, 우연한 기회가 찾아와 바리스타가 될 수 있었습니다.

#### Q. 바리스타라는 꿈을 가진 어린 친구들이 꿈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리스타는 자격증 시험은 없지만 필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적성에 맞아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적성에 맞다고 생각이 들면 평소 지속적으로 커피 및 음료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종류를 접하며, 몸소 배우면 더욱 흥미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 Q. 마지막으로 바리스타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바리스타라는 직업이 겉으로 보기에 편하고 쉬워 보이지만 물 위에 떠있는 배처럼 보이지 않는 면에서 매우 개발을 포함해 정신적, 육체적인 노력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힘든 만큼 보람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사람들을 만나 소통을 기회가 많아, 이야기를 나누며 건넌다면 체면도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훌륭한 바리스타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때까지 꾸준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명옥 시민기자

## 동아리 탐방



### 지역주민들과 함께 남구를 알리는 남구 소식통 - 남구학익마을방송



마을방송 첫돌 상영회

남구를 주제로 미디어를 통해 마을의 소식을 알리고 어두웠던 동네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마을 공동체가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주민미디어축제 행사 준비를 함께 하며 모이게 되어 현재는 지역주민 20여명이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 ‘학익마을방송국’입니다.

‘학익마을방송국’의 남희정 국장님을 만나 만들어진 과정과, 진행해왔던 내용을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Q. 남구학익마을방송국의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남구학익마을방송국은 2013년 주민미디어축제에서 영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모여, 지역에 소소한 이야기를 지역주민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게 된 마을공동체입니다.

그러한 목표를 이루고자 하면, 여러 방법에서의 지식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현재 편집국장님과 함께 구청에서 진행되었던 I-pad 영상촬영 및 편집에 대한 교육과 또한 아나운서·리포터 과정도 함께 수료하였습니다.

현재 20명 정도의 인원이 활발히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대부분의 인원들이 50~60대 분들입니다.

#### Q. 남구학익마을방송국의 활동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작년에는 여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작년 5월 ‘우리 마을’을 만드는 마을 방송으로 인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또 ‘우리 동네에만 있는 이야기’로 전국미디어센터협회 영상콘텐츠 공모사업에 선정, 단편영화 제작을 위한 사업비 300만원을 지원받아 활동하였습니다.

이러한 공모사업들의 선정되는 일은 매우 기분 좋은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공모사업에 집중하여 다른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년도부터는 공모사업 이외에 다양한 활동을 진행·계획 중에 있습니다.



학익마을방송국

### 조선시대 서민들의 얼과 생각이 반영된 가장 한국적인 그림 민화의 전통을 이어나간다 - 사)한국민화진흥협회



전국민화공모대전

사)한국민화진흥협회에서 5월 2일~8일에 인천예술회관에서 5월17일~23일 인사동에서 전국민화공모대전을 열었다.

민화는 멀게는 석기시대에 암각화에 서 조선시대에 생활살상을 목적으로 무명인들이 그렸던 그림으로 산수, 화조, 풍경, 인물 따위의 정통 회화를 모방한 것으로 소박하고 과격적이며 익살스러운 것이 특징이며, 자신의 바람과 복과 다산을 비는 명목을 갖고 생활 속의 소소한 그림들을 그려서 벽이나 병풍, 족자에 놓고 보는 것으로 벽을 꾸미기도 하는 생활 장신구의 역할을 해 오던 그림이다.

또한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우리나라 고유의 오방색을 사용하여 보다 자연스럽고, 이러한 색을 사용함으로써 심리·정서적인 안정감을 불러 일으켜 주기도 한다.

민화진흥협회의 최윤정 이사가 남구에 사는 민화를 그리면서 전통을 살리고 체험 위주로 민화의 새로운 면을 알리고 있어서 소개를 하게 되었다. (사)한국민화진흥협회는 전국적으로 400~50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공모전 전시회, 회원전을 통해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인천 남구지사는 (주안5동 석정로 424번지 해원 민화 갤러리) 동아리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7시에 체험 활동을 하고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규회원을 받고



(사)한국민화진흥협회 최윤정 이사



(사)한국민화진흥협회 최윤정 이사

있으며, 민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최윤정 이사(해원 갤러리)는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노인정·복지회관·건강센터·학교 등을 통해 민화를 손쉽게 그려보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을 마련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전업 작가로 전향의 토대를 마련하고 생도를 양성하고 싶다고 전했다.

가까운 계획으로는 다가오는 11월에 민화 작품 전시회를 기획 중에 있으며, 이 전시회에 많은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전시회가 되길 바라고 있다. 민화를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 조인을 하면 민화는 초(민)그림에 모사 기법을 사용하여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색을 여러 겹으로 입히는 방법인데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다. 또한 모사를 통해서 창작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주 재밌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므로 어렵지 않게 그릴 수 있는 것이 민화이기 때문이다. 목판, 부채, 비단, 모시, 손수건, 거울, 달력, 엽서 등에 그려 자신의 작품을 선물하기 좋게 마련하고 있으므로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

전미옥 시민기자



